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50,4-7 | 제2독서 | 필리피서 2:6-11 | 복음 | 요한 22:14-23:56

◎말씀 <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겔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깔았다.’ 고 전합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에 겔옷을 벗어 길에 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신분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깔았다는 것은 아마도 가난한 이들. 즉 신분도 낮고 재산도 없어 옷마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는 이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과 함께 자기들의 마음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의 인간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됨을 복음은 전해줍니다. 우리는 조금 전 행렬을 통해 예수님을 뒤따라 이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겔옷을 벗어 깔았던 예루살렘 시민들 처럼 우리도 세상에서의 신분을 벗고 여기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바로 그날 저녁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밈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벗어던졌던 ‘옷’ 곧 자기신분을 다시 걸친 상태입니다. 어둠이 깔리고 세속적 신분을 회복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욕심과 생각만을 펼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 또한 동조합니다. 수난복음 곳곳에서 ‘얹다’ 라는 동사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겿세마니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을

‘여기에 앉아 있어라’ 고 하셨고, 예수님 무덤 앞에는 여인들이 앉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앉아 있었다’는 한자로 ‘좌(座)’를 말하는 데, 의미는 힘과 권위와 역할을 말합니다. 지금 겔옷을 다시 입은 인간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예수님 죽음 앞에 앉아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인데, 열두 사도의 수장으로서 ‘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겔옷을 입은 상태의 인간이 이렇게 하느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결국 자기 생존을 의미하는 세상 속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 확장하기 위해 인간은 별의별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호소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위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만 내 심중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외침을 기도를 하느님께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인간의 고집스러운 집착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내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 부활의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4월 16일(화)	성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4,086.00 \$ 1,274.00
4월 17일(수)	성주간 수요일	오전 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675.00 \$ 135.00
4월 18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만찬미사)	사회복지 성물방	\$ 135.00 \$ 118.00
4월 19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8시 (수난예식)	원캠페인 사제관건축	\$ 200.00 \$ 2,000.00
4월 20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부활성야미사)	합 계	\$ 8,623.00
4월 21일(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2명 성인: 210명
교무금 봉헌자	이호순(1-12월)장애익(4-6월)백정심. 이상기(4-5월)임원호(3-4월)이명숙(1-4월)임복순. 전정목(2-3월)윤여훈(1-3월)장호길(1월)윤영자. 김규철. 권영일. 구준모. 박원상. 성영진. 김상돈. 김옥륜. 김규대. 지복원. 김양순. 황호민. 장대석. 김길록. 박선경. 김영숙(4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낙태는 왜 죄 일까요? 태아생명 왜 지켜야 하나요?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가톨릭교회는 엄연한 생명인 태아의 낙태를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죄로 보고 있는데, 낙태죄 폐지 논란의 핵심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무엇이고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이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말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아는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과 같습니다. 특히 낙태를 결정하는 어른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니 더더욱 반인륜적입니다.

생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입니다. 태아는 5주가 지나면 눈,코,입이 생겨납니다. 8주가 되면 중요한 장기들이 형성이 되고 16주가 지나면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데도 태아는 단순히 세포나 혹 일까요? 태아는 분명한 인간생명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삶은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헌법 제10조로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인권보장입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낙태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인가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1항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황금률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예외 없이 유효하다."

낙태는 임신의 축복과 양육의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에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갓 태어날 아기를 헤치면서 생명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생명보호의 책임은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가톨릭 신자라면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김광진.요한 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동환베드로,이순애.엘리사벳 영혼	박원상.토마스	생	허용희.루시아의 영육간 건강	안나희
연	류재표.베드로, 최두능.안나 영혼	유가브리엘라	생	(생일)박상진.다니엘의 영육간건강	박병수.박수옥
연	성낙순.요안나 영혼	이울리아나가족	생		

간
장
중
지

◎텅 빈 것◎

저 텅 빈 것을 잘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눈부신 햇빛이 비쳐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도 이 호젓하고 텅 빈 곳에 머무는 것이다. - 장자 -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주님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성지가 지 축복 및 입성기념행렬이 있습니다.
성당 동쪽 마당에 모여주세요(성지가 지 지참)
노약자는 성당안에서 기다려주세요.

1. 사순절 십자가의길 기도안내
일시: 19일(금)오후3시. 주님수난 성금요일
기도담당:연령회
2. 모임안내
꼬미시움: 14일(일)오후1시. 엘리사벳방
울뜨레아: 17일(수)오후7시30분. 엘리사벳방
3. 부활판공성사(성사표: 사무실에 있음)
사순시기동안 미사 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교우들과 함께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4. 부활맞이 성당대청소
일시: 20일(토)성당 및 친교실
담당구역: 게시판 참조해주세요.
5. 사순절 저금통(부활절봉헌)
사순절 동안 불우한 이웃과 나눔을 위해
단식 및 금육.희생의 몫을 담아주세요.
6. 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 4월28일(일)오후3시 성당출발
참여단체;성모회 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7. 성삼일 및 부활대축일 전례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 18일(목)오후8시. 만찬미사
세족례. 성체조배. 사순절저금통봉헌
(세족례대상자. 성체조배순서: 게시판참조)
주님수난 성금요일: 19일(금)오후8시. 수난예식
십자가경배. 성지복구헌금. 단식과금육
십자가의길 기도(오후3시: 연령회)
부활성야: 20일(토)오후8시. 부활성야미사
빛의예식. 부활찬송. 특별감사헌금
주님부활대축일: 21일(일)오전11시
대축일미사후 식사나눔 및 부활행사 있음
(이날 오전9시 미사는 없습니다)

8. 부활행사안내(문의: 행사부장 장현철)
창백전(단체게임),OX게임(개인종목),Egg Contest
라플판매/상품추첨 등
감사합니다(도네이션): 송돈희(\$100)
9. 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 18일(금)오전9시. 부제님
박성진. 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10. 엠마우스 일일피정(Bus 투어)
일시: 27일(토)오전8시-오후5시. 오전8시 출발
장소: Sonoma Mission. Napa성당과 와이너리
준비물; 목주. 편한신발. 개인용간식
신청 및 도네이션; 구준모(916-801-6418)
감사합니다(도네이션): 전기례. 송돈희. 임정남
김귀태. 안나회. 요셉회(각\$100)김병길(떡)
11. 여성 제13차 꾸르실료(북미주 서중부)
일시: 6월20일(목)-23일(일)문의: 김동현. 이대원
장소: Oakland Holy Redeemer Center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학교기금마련 부활계란 만들기: 20일(토)오후5시
10세이상: 혼자 참여 10세미만: 보호자와 함께 참여
부활절 초등/유치부 행사안내
Egg Hunting/Easter 크레프트 게임(점심식사후)
첫영성체 교리반: 격주 일요일 오전10시. 사무실
주일학교 봄방학: 14일(일)-21일(일)

- 식사봉사(이번주); 보조: 김귀태. 박원상
식사봉사(다음주); 각여성단체(주님부활대축일)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 9, 10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목요일 오후8시. 데레사방
- 원캠페인; 김현준(\$200) 잔액: \$7,200
개인별 약정금액을 봉헌해 주세요.
- 사제관건립기금; 이호순(\$2,000)
목주기도: 680단 합계: 532,820단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전례봉사	주님수난성지주일(4월14일)	주님부활대축일(4월21일)	하느님자비주일(4월28일)	부활 제3주일(5월5일)
해설	임상일. 프란치스코	최금주. 요안나	김은선. 제노베파	김선영. 플로라
제1독서	정현학. 파비아노	조제호. 안드레아	윤재경. 알베르도	김규철. 레오
제2독서	최혜린. 파비올라	박수옥. 글라라	윤은실. 비비안나	장현철. 엘리야
복사	김규철. 장현철	최준우. 윤여훈	허호영. 박성호	최진호. 이상인
봉헌/기도/청소	9-10구역	9-10구역	9-10구역	9-10구역
헌금위원	고원석. 윤재경. 안강순	안병훈. 정의주. 박수옥	이영숙. 임혜숙. 이경희	전비아. 류정민. 나송희